

II. 價格自由化 以後의 市場動向

□ 價格 측면

- 동일조건 가입자의 경우라도 회사마다 보험료 차이 발생
 - 충분치 못한 위험도 분석을 통한 과당적 가격인하
 - 회사간 가격경쟁으로 계속적인 가격인하(8/1 요율신고 이후 회사별 2주만의 재인하)
 - 금융감독원 별도 신고없이 회사별로 개인용/ 업무용 : 30~50%, 영업용 : 50~100%이상 범위내 자율 사용
 - 경쟁사 가격 추격 항시 가능
 - 동일 가입자에 대한 복수 가격구조로 보험료 차별
 - 이에 따라 동일업체에 대한 회사별 보험료 차이가 2배이상 발생
 - 즉, 과당경쟁에 따라 부가보험료 뿐만 아니라 순보험료의 상당부분까지 할인
- * 최근 한전에 대한 회사별 보험료 입찰시 작년대비 약 60% 인하

□ 요율요소 측면

- 연령세분화/ 21, 26세 특약이외의 24세 특약 신설
- 가입경력 세분화/ 최초가입자 요율인하(180%→140%~165%)
- 성별요소 추가사용/ 자동변속기 여부 추가 사용
- 스포츠카 여부/ 레저용 여부

□ 상품 측면

- 고보장 상품개발(2000. 8월이후)
- 다양한 담보 제공(피해자 및 가입자의 보장내용 강화)

- 특약개발 및 요율신설
 - 자동차상해특약(동양)
 - 조기계약 할인특약(신동아)
 - 30~64세 특약(대한)
 - 1톤이하화물차 가족한정특약(쌍용)
 - 차고지유무에 따른 특약(제일, 개발중)
 - 자녀사랑 패키지보험(삼성)
 - 대중교통사고 보상특약(현대)
 - 단기운전자 확대특약(LG)
 - 고장수리비특약(동부)